

지역 **소식 통**

군산시, 하반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7억5천만원 확보

군산시(시장 김임준)가 하반기 재난안전 분야 특별교부세 국비 6억원, 도비 1억5천만원을 포함해 총 7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재난안전분야 특별교부세 대상은 △유유천 제방보강공사(3억 원) △경포천 산책로 자동차단시설 설치(3억 원) △미제천 지방하천 준설사업(1억 5천만 원) 등 모두 3건으로, 호우로 인해 반복되는 침수 피해 예방 및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여름 호우로 제방이 무너지고 법면이 유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서수면 우유천 일대가 이번 특별교부세로 복구작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백운초 안전건설교장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안전한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정읍시, 농기계 임대료 연말까지 50% 감면 연장

정읍시가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5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임대료 감면 정책은 지역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은 현재까지 지역 농업인들에게 7억8824대의 농기계를 임대하며, 총 8억37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감면 대상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임대 농기계로, 총 94종 1688대에 해당된다. 또한, 시는 본소를 포함해 권역별로 5개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이며 모든 지소에서 동일하게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은 단순히 농업 노동력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부안군, 2024년 종무식 차분히 간소화 개최

부안군은 무안공항 참사를 애도하기 위해 31일 개최 예정이던 변산 해넘이 축제 등 각종 행사를 취소하고 2024년 종무식을 간소히 진행하며 차분히 한 해를 마무리했다.

이날 종무식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공항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의 묵념을 시작,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해를 다짐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종무식은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종 분야에서 노력한 군민과 직원에 대한 시상과 최영두 부군수 이임사 권익현 부안군수의 송년사 순으로 진행됐다.

또 올 한 해 직원들의 노고가 담긴 송년영상과 연말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느낄 수 있는 AI 영상 시청으로 직원들에게 감동의 시간을 안겨줬다. /부안=김석진기자

여객기 사고 유가족 지원체계 가동

고창군, 무안공항 제주항공 재난관리지원 ‘현장지원반’ 편성·급파 29일부터 운영 중

고창군이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관련 재난관리지원 및 유가족 지원 체계를 가동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창군에 연고를 둔 피해자는 총 6명으로 선운산 농협 공음지점 직원가족 5명,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재학생 1명으로 파악됐다.

고창군은 피해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지원반’을 편성·급파하여

지난 29일부터 운영 중이다.

고창군은 군청 앞 전봉준 동상 인근, 선운산농협은 공음지점 내 분향소를 마련하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창군도 지난 29일부터 1월 4일을 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이에 신년 해맞이, 신년거리 인사 등 행사를 취소하고 군민 신년하례회는 애도기간 후로 연기하여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서는 조가를 계양하고, 전 공무원 근무 리본을 착용하는 등 슬픔을 함께하고 있다.

고창군과 선운산 농협 관계자는 “갑작스런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 대하여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전북 대표축제 선정 평가에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며,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군산시간여행축제 ‘전북 최우수 축제’ 선정 쾌거

6년 연속 최우수 축제 선정... 도비 인센티브 7000만원 지원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전북 대표축제 선정 평가’에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며,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군산시는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전북 특별자치도 최우수 축제라는 타이틀과 함께 도비 7천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시군 대표축제 선정 평가는 전문가 현장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진행되었다.

지난 10월에 개최된 시간여행축제는 ‘근대 놀이’를 주제로, 근대문화를 재해석한 군산만의 독창적인 프로그램과 다양한 체험 요소를 선보였으며, 지역 상인들과 협력해 조성한 먹거리 골목 등 다채로운 행사가 더해졌다. 덕분에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약 3만명이 증가한 16만명이 찾아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역시 지난해 대비 6억원이 증가한 52억 2,000만원으로 조사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축제 운영 또한 돋보였다. 시간여행 퍼레이드와 시민 참여 공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축제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간여행축제가 2020년부터 6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며 전북을 대표하는 축제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라며, “앞으로도 군산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더욱 발전시키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축제로 성장해 시민들이 사랑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두 바퀴로 떠나는 여정, 고군산군도 자전거길로 오세요”

군산시, 자전거 자유여행 코스 60선 최종 선정

군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에 고군산군도 자전거길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군산군도 자전거길’은 신시도에서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까지 이어지는 군산의 대표적인 자전거 여행 코스로 바다를 즐기며 달리는 자전거길로 유명하다.

‘고군산군도 자전거길’은 지난 5월

부터 전국 지자체가 추천한 코스를 대상으로 주변 경관 및 노선 안전성 등에 대한 전문가의 현장 점검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선정된 코스는 신시도에서 장자도까지 이어지는 왕복 21.1km길이의 자전거길로, 거리도 짧고 오르내림도 거의 없어 생활 자전거로도 충분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초급 난이도의 평탄한 코스이다.



군산시, 지역 ‘안전지수 양호지역’ 2년 연속 선정

군산시가 전국 자치단체의 안전역량을 나타내는 ‘2024년 지역 안전지수’ 정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안전지수 양호지역’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에서 2024년 지역 안전지수를 산정하고, 이 같은 결과를 지난 30일 공개했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분야별·안전수준과 안전의식 등 상대적인 안전 역량을 진단하고, 지역 안전지수로 산출해 매년 공개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28개 지자체가 안전지수 우수 및 양호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북에서 유일하게 군산시가 양호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안전지수 양호지역은 안전지수 6개 분야 중 하위등급(4·5등급)이 없는 군청있는 안전역량을 갖춘 지자체로 평가된다.

군산시 안전총괄과장은 “군산지역 안전지수 등급 상상을 위해서 각종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정읍시가 ‘2024년 행정안전부 조직운영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재배치 실적 우수 부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효율적 조직 운영 빛났다”

정읍시, 행안부 장관상 수상... 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

정읍시가 ‘2024년 행정안전부 조직운영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재배치 실적 우수 부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선정된 정읍시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의 모범을 보여 그 의미를 더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직 운영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재배치 실적 우수 지자체로는 전국에서 총 7곳이 이름을 올렸다.

시는 급변하는 행정 여건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능 쇠퇴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는 동시에, 신규 행정수요와 핵심 사업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했다. 이로써 일반직 정원의 3% 재배치를 달성하며 유연하고 전략적인 조직 운영의 성과를 입증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발맞춰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했다. 개편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읍=김태환기자

고창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

공공요금·축제·명절 등 평가, 특별교부세 5000만원 확보

고창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5000만원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지방공공요금 동결여부, 착한가격업소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률, 지방물가 안정노력을 위한 추진실적 등 5개분야, 12개 지표를 대상으로 정량평가(75%)와 정성평가(25%)를 실시해 종합 평가했다.

고창군은 군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 올 상반기 인상 예정이었던 상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하였으며, 쓰레기봉투 가격 등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했다.

또한 지역축제 기간과 명절기간 물가인정을 위한 캠페인·물가정보 게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지원과 업종별 물품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창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창군은 연말 비상사태로 인한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물가 안정 관리 우수기관 선정은 행정 뿐만 아니라 고창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가능한 성과”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5000만원 확보

부안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실적 등 정량평가(75%)와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대한 노력 등의 정성평가(25%)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방물가 안정화에 노력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군은 2024년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물가관리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명절, 축제,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합동 점검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인 결과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평가에서 확보한 인센티브 5000만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인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물가인정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군산시, 새해부터 ‘공공심야약국’ 변경 운영

군산시는 새해부터 공공심야약국을 기존 ‘해맑은약국’에서 ‘센트럴약국’으로 변경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운영하던 해맑은약국(문화로 37, 문화동)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는 센트럴약국(조촌로 131, 조촌동)으로 지정되어 운영된다.

공공심야약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365일(연중무휴) 운영되는 약국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

으며,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기회가 제공된다.

시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공공심야약국은 1개소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공공심야약국이 지역사회 건강 지킴이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